

### 삶의 철학

권영익

‘논어(論語)’ ‘학이(學而)’편에는 공자(孔子)와 그 제자인 자공(子貢)의 대화가 실려 있다. 필자가 좋아하는 문구인데 아래에 소개하고자 한다.

자공 : “가난한데도 아첨하지 않으며 부자인데도 교만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子貢曰 貧而無諂 富而無驕 何如?)

공자 : “괜찮다. 하나 가난하면 서도 즐겁고 부자이면서도 예의를 좋아하는 것만 못하다.”(子曰 可也 未若貧而樂 富而好禮者也)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중국의 춘추전국시대를 살았던 이들의 이야기다. 평생 살아가면서 삶의 원칙으로 삼을 가치관에 대한 사제 간의 대화이다. 이 대화에 대해 약 800년전 역시 중국 남송시대 주자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해설을 곁들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주자 : 평범한 사람은 “가난”과 “부유”라는 가치에 빠져 스스로 지켜야 할 도리를 망각하기 쉽다. 때문에 가난하면 아첨하게 되고, 부자가 되면 교만해지는 두 가지의 병통이 생긴다. 자공은 자신의 생활철학으로 아첨도 안하고 교만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스승에

게 밝혔다. 이는 자공이 최소한 스스로 지킬 도리는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자는 자공에 대해 “가난”과 “부유”의 가치를 초월하는 삶의 가치는 아직 미치지 못했다고 한 수 가르쳐 주고 있다.

常人 溺於貧富之中 而不知所以自守 故必有二者之病 無諂無驕 則知自守矣 而未能超乎 貧富之外也

이상 공자와 자공의 대화 및 그에 대한 주자의 해설을 읽다보면 대체로 사람을 세 분류로 나눌 수 있겠다. 물론 삶의 기준을 빈부(貧富)로만 보는 한계성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해석의 유연성을 염두에 두고 시도해 보자.

첫째는 평범한 사람이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지 않나 생각된다. 가난하면 못나고 잘살면 거만해지는 것이다.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신념을 저버리는 언행이 뒤따른다. 부유하기에 아무 생각 없이 나 잘났다고 살아가기도 한다. 가난하면 그렇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살려면 비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경우도 있다.

어느 경우든 부유와 가난과의 가치에만 빠진 것이다. 삶의 다양한 기준과 방향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특히 자존심과 자부심이 결여된 삶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자공은 둘 다 무식한 삶이라 보았다. 이런 삶은 가난해도 부유해도 평범한 부류라는 것이다.

이처럼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또는 부유한 자와 미약한 자가 있다. 그들 사이에는 그에 따른 영향력에 좌우되어 뽐내고 눈치 보는 폐해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고 이는 상식처럼 되었다. 그래서 평범한 것이다.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 세상살이가 그런가 보다.

둘째는 자공의 경우다. 신념과 자존심이 삶의 중심축으로 들어온 것이다. 비록 가진 것이 없더라도 비굴하지 않았다. 양심과 신념을 저버리는 삶은 뜻대 없는 사람이다.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꾸리고 살아가고 싶은 뿐이다. 또한 넉넉해도 절대 거드름을 피우지 않았다. 잘난 체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남들 눈에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니 것을 각인시키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자공의 경우도 공자의 입장에서 보면 약점이 있다. 즉 가난과 부유를 초월한 삶의 철학

은 아직 아니라는 것이다. 남들 눈을 의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삶의 철학으로 가난과 부유를 초월한 새로운 가치가 없다.

따라서 평범한 사람이든 자공이든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을 창조하겠다는 입장은 없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공자는 제자에게 좋다(好)는 표현 대신 괜찮다(可)는 가르침을 주었다.

셋째는 공자의 주장이다. ‘가난하면서도 즐겁고 부자이면서도 예의를 좋아한다. 자신이 잘하는 지 못사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또 가난과 부유를 망각한 채 산다. 즉 빈부를 초월한 삶이다. 최소한 이런 삶을 지향해야 참인간의 모습이라 공자는 보고 있다. 소위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뜻일까? 어쩌면 대립과 갈등이 사라진 인간사회의 모습이 아닌가 한다. 이상향이다. 가난해도 인성이 즐겁다니..... 부유한데도 몸에 예의가 저절로 배어있으니 공자의 심오한 경지에 다가가지 못하고 있으니 필자는 그저 학문을 했다는 것이 부끄러울 뿐이다. 그러나 필자는 위 세 가지 부류 중에 첫째에 속한다. 성인이 아닌 이상 사람이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가 빈부의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어떤 면이고 있으면 편하다. 그러면 서도 둘째에 속하는 편으로 양심과 신념으로 살아가려 한다.

사람이라고 치켜세웠다.

어의 출신으로 권씨가 막강했던 강명길은 다산 정약용이 암행어사로 임명되어 적성 등 6개 고을을 암행 감찰할 때도 문제가 되었던 인물이다.

강명길은 삭녕의 전 군수를 5년 동안 했는데 온갖 나쁜 짓은 다했다. 관청의 사무에는 관여하지 않고 식사비용이나 봉급을 후려치고 세금을 과중하게 합부로 거두었다. 군수직을 마치고 퇴임하던 귀향길에는 집이 어찌나 많은지 운반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행어사의 강력한 처벌 요구에도 대신들이 가로 막아 처벌되지 않았다.

다산은 임금에게 이 사람이 법한 죄악은 수령이라는 제도가 생긴 이래 들어본 적도 없을 만큼 큰 죄악이니 대저 법의 적용은 임금의 측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보고 고하기도 했다. 결국 강명길은 정조의 죽음에 책임을 져 처형당했다.

편집국장 권영완

### 임금도, 임금의 측근도 어쩔 수 없었던 ‘올곧은 선비 권업’

권업은 1773년 과거를 빈번히 실시하지 말 것을 상소했다가 추자도(楸子島)에 유배된 적이 있다. 1801년에는 이가환 이순훈 정약용 등을 천주교 관련자로 몰아 극형을 주장하기도 했다. 다산은 자기를 죽이라고 주장했던 권업에 대해서도 올바른 목민관의 사례로 목민심서에 소개하고 있다. 그 내용은 이렇다.

병조판서 권업(1729-1801, 영조5-순조1)이 한성 판윤이 되었을 때의 일이다. 당시 태의 강명길(1737-1801)이 왕의 은총을 믿고 마음대로 설치나 조정이나 민간에서 모두 눈살을 찌푸렸다. 명길은 서문 밖 교외에 땅을 사들여 그 어버이를 이장하였는데 그 산 아래에는 오래 된 민가 수십 호가 있었다. 그는 이들을 죄다 사서 10월 달 추수 후에 집을 비우고 나가도록

약속받았는데 그 해 가을에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약속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강명길이 그의 종들을 시켜 한성부에 고소하였으나 권업이 몰아내기를 허락하지 않았다. 하루는 승지 이익운을 불러 가만히 관윤을 달래 다시 고소가 있기를 기다렸다가 이속을 풀어 백성을 몰아내도록 하라고 일렀다. 그 다음날 강명길이 다시 고소하였으나 권업은 다만 종전의 판결대로 하여 조금도 변동이 없었다.

이날 왕은 이익운을 불러들여 책망하였는데 우뢰같은 왕의 노여움에 듣는 사람들이 모두 목을 움츠렸다. 이익운이 가서 그 사실을 전하자 권업은 “백성들이 지금 굶주림과 추위가 빼어 사무치게 되었는데 몰아내어 쫓는다면 길바닥에서 다 죽을 것이다. 차라리 내가 죄를 입을지언정 차마 이렇게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나라를 원망하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다. 그 다음날 강명길이 다시 고소하였으나 종전의 판결을 따를 뿐 조금도 고치지 않으니 듣는 자들이 모두 권업을 위대하게 여겼다.

여러 날 뒤에 왕이 이익운에게 이르기를 “내 조용히 생각해보니 관윤의 처사가 참으로 옳았다. 관윤 같은 이는 만만치 않는 사람이다. 경은 아마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다” 하였다. 권업이 이 말을 듣고 감동하였다.

권업은 백성을 몰아내라는 임금의 지시마저도 거부하고 오직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보호했다. 강명길이 임금의 지시를 받아가며 세 번이나 고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나라를 원망하게 할 수는 없다며 끝까지 소신을 지켰던 올곧은 선비였다.

결국 정조는 권업의 처사가 옳았다고 말하며 권업은 만만치 않는

### 희망을 찾아 천사의 섬으로 떠난 ‘청년 권호’

권호(추밀공과, 26세)의 자는 소봉이다. 양촌 권근의 큰 아들인 권천(나주목사 역임, 세종 5-6)의 후손이다.

중조 할아버지는 화순현감을 지낸 권준(23세)이고, 고조 할아버지는 남평현감을 역임한 권현(22세)이다.

권호는 5살 때 병자호란을 겪는다. 나주에 조상들의 세거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나주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신안군 홈페이지(www.shinan.go.kr)에는 권호가 1650년(효종1년)에 해남을 거쳐 신안군 도초도(都草島)라는 섬으로 들어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때 권호(1632년생)는 19살 내지는 20살의 청년이었으리라.

1004의 섬이라고 일컫는 신안군 섬들은 임진왜란 이전까지는 조정의 공도(空島)정책으로 인해 섬에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에 목민관과 아전들의 핍박을 피해 미개간지를 개간하면 내 땅으로 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강진, 해남, 나주 등에서 미개척지인 인근 섬으로 들어갔다.

경국대전에는 미개간지를 개간했을 경우 개간자가 소유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그만큼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에는 전쟁으로 인해 농지는 황폐화되고 관리들의 수탈이 심했다. 선조가 인근 지역의 현감까지 지낸 후손이 이 정도였다면 다른 백성들이야 오죽했겠는가.

다산 정약용이 강진에서 목격했다고 목민심서에 기록한 애절양(哀絶陽, 군포를 안넌다고 아전이 소를 끌고 가자 남편이 갈로 자기 남근을 자른 사건)이라는 사태는 수령이나 아전들의 수탈이 어느 정도까지 인지를 가능하게 한다.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고 항심(恒心)을 잃었으며 부자(父子)가 서로 보전하지 않고 형제 처지가 모두 흩어져 떠났다. 강진, 해남, 나주 등의 육지 백성들은 주변 신안군 섬으로 삶의 희망을 찾아 떠난다.



하의도 주민들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보은패를 전달하고 있다.

섬으로 들어간 이후 이들의 삶은 육지에 있을 때보다 더 잘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호남 군세사 이후가 영조에게 호남 해도(海島)의 상황을 보고하는 장면(영조실록 73권, 영조 27년 2월 21일 기축, 1751년)을 살펴보면 대략 짐작할 수 있다. 영조는 이후에게 “섬의 백성들이 주현(州縣)에 통속(統屬)되지 않았는가?” 하고 묻는다.

이후는 “해도는 부근의 고을에 소속되어 약간의 세금을 거두는 일이 있기는 하지만 섬사람들이 생전 관장(官長)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보고한다.

그러면서 이후는 “섬 가운데 거주하는 백성들이 번성하고 생활이 풍족하여 육지(陸地)의 백성들보다 나왔습니다.” 라고 보고한다. 목민관이나 아전들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는 섬 백성들이 육지 백성들보다 더 잘 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안동권씨 족보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족보에는 섬으로 들어간 권호의 손자 권도배(28세, 1708, 숙종34-1778, 정조3)가 가선대부(嘉善大夫)로 기재되어 있고, 그 사촌 권덕추는 절충장군(折衝將軍)으로 명시되어 있다.

가선대부와 절충장군은 실제로 벼슬을 한 것이 아니고 조정에서 나라의 재정을 보충하려고 부유층으로부터 돈이나 곡식을 받고 팔았던 공명첩(空名帖)이다.

공명(空名)이란 “받는 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은”이란 뜻이며, 첩(帖)은 사령장 또는 임명장을 뜻한다.

공명첩은 글자 그대로 허직(명예직) 임명장이다. 권호가 섬으로 들어간 이후 손자 대에 이르러 조정에서 발행하는 공명첩을 살 정도로 부(富)를 이루고 잘 살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신안군 섬들 중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고향인 하의도의 경우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알 수 있다.

하의도는 인조가 반정에 성공한 이후에 인목대비의 딸 정명공주에게 사패지로 주었던 공방전이었다.

그 사패지는 약 20결(약 8만 평) 정도 밖에 안됐는데 백성들이 개간한 땅까지 포함한 160결에 대하여 몽땅 사패지로 삼으려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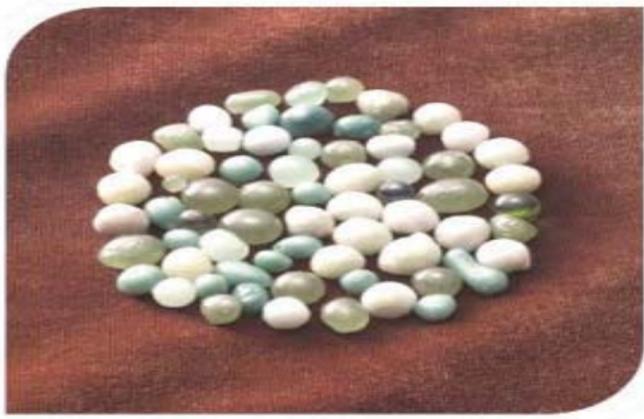
이로부터 공주의 외손(풍산 홍씨)들과 하의도 섬 주민들 간의 농지탈환 투쟁은 제헌국회 때에 이르러서야 해결되었다. 무려 330여년에 걸친 기나긴 투쟁이었다.

하의도 주민들은 2015년에 이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 제헌국회의원들을 백방으로 찾았으나 살아계신 분이 한 분도 없는 관계로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보은패를 전달했다.

편집국장 권영완

## 장례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장례문화는 매장에서 화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본사는 묘역관리 및 화장 후 유골 보존에 세계 발명 특허 장치에 의한 사리화(봉안옥)로 생성시켜 영구 정결 보존하도록 납골당 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꾸는데 성공 현재 전국 4,000여기를 봉안하고 있습니다.



봉안옥(奉安玉 자화사리) 견본 사진



표준 봉안함



기독교 성서형 봉안함



불교형 봉안함

### ◆ 봉안옥(奉安玉 자화사리)의 안내

- ◆ 고인을 깨끗이 봉안할 수 있어 사자의 품위와 평안을 유지하고 유족에게 안심을 통한 또 다른 기쁨을 드립니다.
- ◆ 유골이 구슬(사리) 모양으로 생성되어 거부감과 변질이 없습니다.
- ◆ 영옥(靈玉)은 종교의 구분이 없습니다.
- ◆ 깨끗하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어 돌보지 않는 산소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가족에게 효(孝)사상을 고취시킵니다.



## 주식회사 본향

주소 : 경기도 이천시 증신로 345번지 165, 홈페이지 : www.holytec.com / 상담문의 : 010-5224-0079 고문 권영순